

아소 신사: 하궁과 상궁

공통의 목적을 가진 두 신사

기원전 282 년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는 아소 신사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두 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궁(아래쪽 신사)으로 칼데라 분지에 펼쳐진 아소시에 위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소산조 신사(문자 그대로 ‘아소산 위에 있는 신사’라는 뜻)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상궁(위쪽 신사)으로 아소산 정상 부근 분화구에서 100m 남짓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신사는 모두 아소산 분화구를 신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궁에는 1830 년대부터 1840 년대에 걸쳐 지어진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신전과 운문(樓門)등 6 개의 건물은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문은 규슈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일본 3 대 누문’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상궁은 하궁이 지어지고 나서 조금 후인 19 세기 말경에 건립되었습니다. 메이지 정부(1868-1912)가 지금까지 1,000 년 동안 융합해온 신도와 불교를 강제로 분리하면서 분화구 부근에서 화산신앙을 가진 몇몇의 불교 사찰이 폐사가 되었을 때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상궁은 1958 년에 지어진 한 채짜리 건물로 소박한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화산신앙의 목적은 화산 속에 갇혀 있다고 믿는 신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존경을 받으며 만족스러워하는 동안은 화산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만약 신들이 화가 나면 분화한다고 여겼습니다.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화산 분화는 농작물이나 가축, 인간의 주거에 분연이나 화산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소산의 화산신앙에 대한 최초 기록은 581 년부터 618 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수 왕조의 정사, 중국 수나라 역사서 『수서(隋書)』 (636 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서기』 등의 8, 9 세기 일본 역사서에는 아소산이 신성시되게 된 경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의 중추였던 교토에서 500km 나 떨어진 지방의 산이 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소산의 화산활동은 아소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운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분화구 바닥의 물(신령지) 상태를 살펴, 그 색이나 수위, 모습(거품이 세게 이는 등)의 변화를 교토 조정에게 보고했습니다. 물의 모습이 불길해 보일 경우, 조정은 이를 아소산의 분화와 국난의 전조라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신사에 열심히

기도를 올리도록 명했습니다.